

## < UN 조각공원 作品설명 >

-Explanatory notes of works in UN Sculpture Park-

- ◆ 작가명: 로저 맥팔렌 (Roger Mcfarlane)
- ◆ 작품명: 기념비 (Monument)
- ◆ 국적: 호주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이 조각품은 스테인레스 핀들을 사용하여 태극기에서 유래된 나뉘어진 두 부분을 나타내 고자 두 가지의 합성물과 특징으로 형상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 사이의 국경선을 의미하고 분단 국가의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중앙부분을 가로지른 것이 독수리의 날개인데, 이는 한국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호주의 전통적인 "Wedge tail Eagle"입니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싸웠던 호주인 (호주군인)들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가장 높게 있는 부분)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 ◆ 작가명: 클라우드 라힐 (Claude Rahir)
- ◆ 작품명: 아름다운 우리 아가야 (My beautiful baby)
- ◆ 국적: 벨기에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아름다운 우리 아가야  
네가 아플 때  
너의 하얀 이마 위에  
우리 둘의 손을 얹어서  
열을 내려 주리라.

사랑의 폭풍과 상처로  
네가 고통 받을 때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만일 너의 자유를  
위협에서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기를 들리라.

그리고 만일 네가 죽어야 한다면  
재가 된 우리의 몸이  
갑옷이 되어 너를 보호하리라.  
그 속에서  
행복의 그날을 기다리거라.

- ◆ 작가명: 알렌 바우질 (Alain Vaugier)
- ◆ 작품명: 강의 흐름같이 (As the river flows)
- ◆ 국적: 캐나다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돌의 중심은 강의 흐름과 같다. 모든 운동에너지는 자연 속에 깃들여 있다. 가장 적은 것부터 가장 방대한 양에 이르기까지...이 거대한 자연의 '집합체'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단지 한 일부분일 뿐이다. 그는 가장 왜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로 착각한다. 그는 이 위대한 '자연의 美'를 찬양하는 대신 파괴를 일삼기도 한다. 그는 또한 그의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참 평화'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 작품은 다음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 먼저, 화강석 덩어리 내부에 강의 물결을 세각한 것은, '우주에너지'의 영원한 흐름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남과 북의 구분 없이 물은 그저 흘러갈 뿐인 것이다. 다음은 거대한 암석자체가 물에 의해서 둘로 나뉘는데, 이는 원래는 하나이던 두개의 한국의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양쪽 물가의 내부면에는 '음·양'을 상징하는 십자가형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는 이 돌의 중심인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방향의 중심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 작가명: 실비아 살가도 (Silvia Salgado)
- ◆ 작품명: 빛의 집 (Light house - Casa de la luz)
- ◆ 국적: 콜롬비아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두개의 대칭되는 모형, 마치 사람의 뼈처럼, 기도하는 두손처럼, 동그라미를 반으로 잘라서 나온 똑같은 두개의 반구처럼 똑같은 두 부분이 미래의 화합을 기원하며 유리빛의 구체를 연결시켜 잡아주고 있습니다. 거칠하게 깎인 각 모형의 날 부분은 고통과 힘겨웠던 상처 그리고 희생당한 그들에 대한 회상입니다.

- ◆ 작가명: **보 칼베르그 (Bo Karberg)**
- ◆ 작품명: **사랑의 다리 (Bridge of love)**
- ◆ 국적: **덴마크**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이 작품은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각입니다. 두개의 검은 산이 꿈의 구름을 사이로 부서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막대기로 땅에서부터 올라와 있는 50개 정도의 돌들은 다리를 통하여 소망과 이해를 더해 줍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모든 예술가 한분 한분이 자신들의 조각품에 쓰이는 돌을 기여해 주셨습니다.

- ◆ 작가명: **미카엘 베테 세라씨 (Micael Bethe Selassie)**
- ◆ 작품명: **동반자 (Companion)**
- ◆ 국적: **이디오피아**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나의 작품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벤치위에 다정스럽게 앉아있는 장면이다. 남자는 여인을 한 팔로 감싸 안고, 여인은 한손으로 남자의 왼쪽 무릎을 살뚝하게 누른다. 이는 남·녀의 조화와 통일감을 상징하는 커플의 자연스런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커플의 표현을 통하여 고요한 평화가 나오는 것이다.

◆ 작가명: [오드프레이 에티엔네 \(Audfray Etienne\)](#)

◆ 작품명: [이념의 화합 \(Harmony of ideology\)](#)

◆ 국적: [프랑스](#)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본인은 지금까지 고전적인 조각으로 작가생활을 하여왔다. 물론 가끔씩 화강석을 다루기도 하였지만...내 작품은 주어진 재료를 나의 감각세계에다 단순하고 때로는 짙은 조형감을 나타내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3개의 서로 다른, 각각 의미를 달리하면서 서로 구별되고 그러면서도 조화롭게 모인 부분들의 총합체인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가운데 있는 부분은 ‘평화’를 상징하는 오벨리스크 탑이다. 그리고 나머지 양옆을 받쳐주는 부분들은 각각 ‘자유’와 ‘통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앙에 있는 ‘평화’ 부분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부분들이다. 이들은 나의 작품 속에서 오벨리스크와 서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여 완벽하게 ‘평화’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보는 이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조금은 엄숙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작가명: [안토니스 미로디아스 \(Antonis Myrodias\)](#)

◆ 작품명: [통일을 위한 분투 \(Fight for the unification\)](#)

◆ 국적: [그리스](#)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이 조각품은 화합되고 하나된 세계를 나타냅니다. 모든 인류의 공존, 우애 그리고 단결을 표적하는, 50년전 UN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전 인류의 노력을 이 조각품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작품속 인간의 모형은 지구의 두 동서 반구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화합시키기 위한 그들의 계속되는 강렬한 노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작가명: 크리шна 야다브 (Krishna Yadav)

◆ 작품명: 소리 (Sound of harmony)

◆ 국적: 인도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길이 기억에 남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이 금방 사라집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셨던 6.25 참전 용사들을 기억해봅니다.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물과 공기와 음악처럼 영원히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작가명: 프란시스코 페시나 (Francesco Pessina)

◆ 작품명: 토템 (Totem)

◆ 국적: 이탈리아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하나의 민족만이 아닌 세계 모든 민족의 일기(일상생활)를 그린 유일한 인류의 토템입니다. 여섯 가지 모형으로 구성된 '토템'은 오대륙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장례식 단지의 양식에서 오는 기원과 각 대륙의 지난 문명에 속한 비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형은 바다에 사는 것을 포함하면서 물위의 바람의 수수한 움직임을 내포합니다. (표현합니다) 각 부분 부분에 새겨진 자국들은 농부가 씨를 뿌리다 밭에 남긴 고랑들, 그리고 바다에 남은 배가 지나간 흔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 ◆ 작가명: **버트란드 뉴이 (Bertrand Ney)**
- ◆ 작품명: **둘사이 (Between two)**
- ◆ 국적: **룩셈부르크**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이 작품은 은유를 통하여 이뤄지는 것이다. 둘은 ‘지반의 역사’ 를 증명하는 데 반하여, 우리는 지극히 짧은 순간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현재와 미래를... ‘둘 사이’란 의미는 최초의 화강석 덩어리를 톱질하고, 두 쪽으로 분리하는데 이는 하나이자 동시에 둘인 것이다. 이렇게 이중성이란 인간의 이중성이자 모든 행위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둘이 마주보면서 둘로 나뉘는 순간,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다. 마치 동전이나 메달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둘 사이에는 분리되기도 하고 접촉하기도 하면서 ‘기억’ 과 ‘예상’ 을 반영하는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같이 우리는 ‘생각의 밭’ 에 존재하는 것이다. 조각이란, 시각적 공간 안에서 창조되는 ‘순간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조각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나,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 ◆ 작가명: **미카엘 리우 (Michael Rieu)**
- ◆ 작품명: **넘어지는 인간인지 혹은 추락하는 인간인지 누가 알 것인가?**  
(Who will be able to know if the man is dropping or falling down?)
- ◆ 국적: **네델란드**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이는 나의 작은 역사이기도 하다. 내가 지닌 개성과 내가 겪은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감동 상태를 설명한다. 나는 이 과정을 일종의 소설 쓰듯이 풀어나간다. 수없이 쌓인 크로키, 먹물로 수개월씩 그려나간 스케치, 그 밖에 연필로는 작은 종이에 유화로는 캔버스에 써 내려간 나의 생각들... 이렇게 나는 모든 종류의 재료들을 음미하여 본다. 불란서에서는 이런 나를 ‘식도락가’라 부른다. 하여간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표현해야만 살맛이 나는 것이다. 위대한 발명은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예술가는 어떠한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속에서 끌어내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고통을 절망을 그리고 불구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박찬갑씨가 그 기회를 준 것이다. 그것도 이제껏 아무데서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하여 나는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존재를 느끼며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의 작업은 나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내 방식대로 그것을 소화하여 마치 다른 시인이나 작가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다루듯이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을 그려온 것이다.

- ◆ 작가명: 팜 맥길비 (Pam Mckelvey)
- ◆ 작품명: 꽃 - 화해 (A flower - reconciliation)
- ◆ 국적: 뉴질랜드
- ◆ 작품 사진 ◆



- ◆ 작품 설명: -나의 조각품의 주제는 과거와 현재의 화합입니다.  
-상징적인 꽃돌입니다.  
-꽃은 삶과 죽음의 순환의 한 부분입니다.

삶의 자연적인 변화, 순간적이고 쉽게 저버리는 것을 돌의 강함과 영원함으로 함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윗 표면의 굴곡과 광이 들어간 부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묻어나는 기억속의 과거는 금빛의 잎을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살아있는 생명 그리고 상징적인 손을 하나로 묶음은 사람들의 항구적인(지속되는) 소중함을 내포합니다.

- ◆ 작가명: 긴 하비츠 (Gunn Harbitz)
- ◆ 작품명: 만남 (Meeting)
- ◆ 국적: 노르웨이
- ◆ 작품 사진 ◆



- ◆ 작품 설명: 이 작품(접촉)은 부드러움과 감촉할 수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는 평안한 돌입니다. 한국의 끊이지 않을 오래되고 값진 돌의 문화를 고려해보며 이 돌이 따뜻함과 감촉을 표현하길 바랍니다. 조용한 순간들이 많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세 명의 노르웨이 의사들의 죽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허공과 창조사이에서 보는 움직임의 느낌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다른 형태가 하나 되어감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동등한 자리에서 돌이 하나 되어 나누는 대화로 이 작품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 작가명: 로베르토 말세로 아파브레 로블레스 (Roberto Marcelo Afaible Robles)

◆ 작품명: 무덤의 흔적 (PANANDA)

◆ 국적: 필리핀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이 작품은 우주의 흐름으로부터 끊어진 순간순간들의 엮음입니다. 무덤의 흔적이란 뜻을 가진 ‘파난다’는 50년 전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화강암 작품이다. 음과 양 원소의 원형반침은 화합을 뜻한다. 보트를 타고 가는 받침대 윗부분의 두 사람의 입체조각은 나의 조국을 나타내며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국가들은 중앙에서부터 발산되는 평안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늘을 향해 기둥위에 놓여진 작은 배 모형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

◆ 작가명: 스트리스돔 반 데르 메르이 (Serijdom Van Der Merwe)

◆ 작품명: 화해 (Reconciliation)

◆ 국적: 남아프리카공화국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자연석은 그 자체의 형상과 특징, 그리고 거칠거칠한 느낌을 표현하고 한국에서 온 것임을 강조하고자 사용되었다. 50주년의 한해 한해를 의미하는 돌 겉 표면의 50줄로 된 선은 우리가 일생을 의미하고자 사용되었던 나무에서의 나이테를 의미한다. 다른 나무와는 달리 이 나이테는 시간적인 강조를 위해 사용되었던 겉 표면에 사용되었다. 50개의 라인은 한국 전쟁의 50년을 나타낸다.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려고 죽음과 전쟁을 치유하는 변화의 과정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는 구릿빛의 십자가들 안에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구릿빛 십자가들은 햇빛에 반사되고자 석재의 바깥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 ◆ 작가명: 수잔 홀름베르그 (Susanne Holmberg)
- ◆ 작품명: 침묵 (Silence)
- ◆ 국적: 스웨덴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평화는 오직 상호간의 경청과 화합하기 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침묵은 그러기 위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 작품에서 내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귀모양과 조개껍질 모양을 가진 나선형의 모형은 경청/ 침묵을 표현합니다. 작품에서 보시면 이 모형이 중앙에서 만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화합을 의미합니다.

- ◆ 작가명: 논티밧든 찬다나프린 (Nonthivathn Chandhanaphalin)
- ◆ 작품명: 선의 빛 (Light of the meditation)
- ◆ 국적: 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한 유명한 타일랜드 승려가 말씀하시길 “만약 담마(부처님의 말씀)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종교의 신전을 나타내기 위해 세 가지 다른 선들을 이용합니다. 열린 신전은 결코 그 신전의 문과 창문을 닫지 않습니다. 선을 나타내는 영원한 빛은 신전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가슴속에 길이 밝혀질 것입니다.

◆ 작가명: 라미 아타레이 (Rahmi Atalay)

◆ 작품명: 고요함 (Calm)

◆ 국적: 터키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제 조각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은 하늘을 뜻하며 수평으로 놓여진 부분은 세상을 뜻합니다. 굳게 세워진 수직모형의 표면은 움직이는 수평선으로 부드러움과 휴머니즘 그리고 고요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선들은 단단한 그리고 강한 돌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 작가명: 브랜다 옥스 (Brenda Oakes)

◆ 작품명: 희망의 기둥 (Pillar of the hope)

◆ 국적: 영국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이 조각품은 추상적이고 작품의 개념은 추모의 본질적인 의미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에서 (희생에 대한) 기억은 매우 마음을 사무치게 한다. 모국을 위한 전사는 그 자체가 희생의 전부를 의미한다. 고향을 떠난 타국에서의 희생은 더 없는 손실이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에서 장엄하게 전사한 영국과 영국 군인들의 희생을 표현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하나하나의 검은 점들은 전사자들의 희생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외형은 시간의 초월을 의미하며, 이는 화장암의 어둡고 밝은 부분으로 인지할 수 있다. 시간의 구속은 두 개의 걸면을 포용하고 있는 하나의 구조물로 형상화되었으며 이는 남과 북의 통일을 갈망하는 은유적 표현에 더욱 의미가 있다. - 전반적인 설치도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는 전 세계적인 분쟁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평화를 지향하는 동일한 희망을 나타낸다.

- ◆ 작가명: 찰스 필키 (Charles Pilkey)
- ◆ 작품명: 평화의 탁자 (Peace table)
- ◆ 국적: 미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이 조각품은 원탁 테이블의 형태이다. 미래의 밝은 등불을 지향하고자, 하늘을 향해 만개하는 꽃 모양 속에 점차 자라고 있는 기둥을 테이블 가운데에 표현하였다. 이 테이블은 중앙에 위치한 기둥이 점진적인 인류의 교화를 의미하는 가운데 전 세계를 상징화 한 것이다.

- ◆ 작가명: 권달술 (Kwon Dal-Sul)
- ◆ 작품명: ON AIR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철이 가지는 날카로움과 강력함을 재료적 바탕으로 절제된 형태속에서 현대적 공간성을 역동적으로 추구.

- ◆ 작가명: 김광우 (Kim Kwang-Woo)
- ◆ 작품명: 자연+인간+우연 (Nature+ Human+ Accident)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나는 인간의 행위나 정신을 포기한 바 있다. 역사는 자연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정신을 통한 역사인데 오늘의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을 만들어 놓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것은 질병과 공해, 전쟁만을 남겨놓은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포기했으며 인간의 역사를 자연에 맡겨 두었다면 가장 자연스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다.

- ◆ 작가명: 김도형 (Kim Do-Hyung)
- ◆ 작품명: 시각에 대한 비밀 (Secret about visual sensation)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기하학적 형태중 하나인 원통형상을 분할하여, 감상적 조형을 상징하는 원통기둥과 이성적 조형을 상징하는 사각기둥을 현대적 조형언어로 재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구성으로 안정감과 조화를 주며 약간 뒤틀어진 사각기둥은 변화와 공간감의 깊이를 더해주어 동양적인 조형언어로 표현하였다.

- ◆ 작가명: 김정명 (Kim Jung-Myung)
- ◆ 작품명: 신의 의자 (God's chair)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인간은 누구나 자기성찰과 바램을 위한 신이 있다. 그를 위한 성전의 표상으로 손의 형상을 빌려 의자화 하였다.

- ◆ 작가명: 류경원 (Lyou Kyung-Won)
- ◆ 작품명: 아! 그날 우리는 (Oh! In that day we were)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우리의 예전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가장 초연히 대처하시는 어머니상을 현대적 조형으로 형상화 시킨 작품이다. 내면적으로는 강인하면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어머니 모습을 빌어서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 ◆ 작가명: **박상호 (Park Sang-Ho)**
- ◆ 작품명: **꿈꾸는 의자 ( A dreaming chair)**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인간은 태고적부터 자유롭게 비행하기를 꿈꾸어 왔다. 이 원초적 희망을 의자 등받이의 날개로 시각화하였으며, 큰 귀로 음각한 인간의 두상은 평화롭게 꿈꾸는 자의 상징적 표현으로 인간의 자유에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구조속에 두상과 의자사이의 공간감과 날개의 경쾌함으로 시각적 조형미를 강조하였으며,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감성적 체험을 유도하였다.

- ◆ 작가명: **박은생 (Park Eon-Sang)**
- ◆ 작품명: **지그재그 (ZIGZAG)**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지그재그는 도형의 기본형을 변형 재조립한 것으로 비례의 의한 크기의 변화를 조형화하였다. 반복된 형태의 복잡함과 단순화 된 면과 대비도 시각적 변화를 극대화한다고 하겠다. 즉, 지그재그는 변형과 재조립함으로써 변화 반복과 단순함의 변화를 시각화한 것이라 하겠다.

- ◆ 작가명: 박찬갑 (Park Chan-Kab)
- ◆ 작품명: 아리랑 - 해는 '동'에서 뜬다. (Arirang - The sun rises in the east)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나의 작업은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삼는다. 그것은 곧 인간에게 무한한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는 일이다. 그것이 곧 자유이며 인간 생존의 길이다. 하늘, 땅, 인간과의 조화를 통하여 “오늘날의 작가는 ‘無’ 에서 ‘有’ 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有’ 에서 ‘無’ 를 찾아가는 作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위대한 창조이기 때문이다.” (1989년 조형언어 발표) 고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물질문명은 인간성 상실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위기 의식을 느끼며 살아간다. 마치 그물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처럼 말이다. 그럴수록 인간은 난폭해지고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마련이다.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다.(隋順衆生)  
 사랑의 鍾을 울려라! 사랑의 鍾을 울려라!

- ◆ 작가명: 박태원 (Park Tae-Won)
- ◆ 작품명: 화합 (Reconciliation)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유엔조각공원을 찾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포용력있는 편안함을 보여주는 한편 유엔이 추구하는 전 세계의 평화와 온 인류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또한 자연과 인간의 생성과 성장, 결실과 승화의 섭리를 현대적 조형기법과 조각적 양괴를 통하여 보여주는 추상조각으로서 유기적 형상미와 직관적 인상미를 지닌 현대조각이다. 확대되고 생략되며 자연적인 과정의 단면을 조형적 서술로 표현한 은유적 분위기의 낭만성을 보여주며 부드럽게 팽창되고 절제된 균형을 유지하는 세련된 선과 면의 구성으로 친근한 인상미와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 ◆ 작가명: **신무경 (Sin Moo-Kyung)**
- ◆ 작품명: **아틀란티스로... (To Atlantis)**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본 작품은 자동차의 바퀴와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소재로 하여 조형화하였다. 바퀴의 형상에서 프로펠러가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듯 회전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막 지상에서 이륙하는 순간을 포착하였다. 이는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데아의 세계, 아틀란티스로의 여행을 의미한다. 풍요로우며 평화롭고 모두가 함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아틀란티스. 유엔의 정신과 추구하는 의미도 이런 아틀란티스의 구현이 아닐까? 바퀴와 중앙기둥의 연결부위가 인위적인 힘에 가장 약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브론즈 제작시 바퀴의 연결부분과 기둥 속에 철제로 보강을 하여 자연적, 인위적 힘에 변형이 없도록 할 것이다. 작품의 설치는 양 바퀴의 아랫면에 450×150mm의 접지면적을 마련하고 각각 두 개씩의 양카로 좌대와 고정한다.

- ◆ 작가명: **안시형 (An Si-Hyung)**
- ◆ 작품명: **호흡 (Breathing)**
- ◆ 국적: **한국**
-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모든 것은 살아 움직이며 어디론가 끊임없이 향해가고 있다. 우주안에서 생물, 무생물들은 움직이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것과 관계하며 호흡(呼吸)하고 나아간다. 앞에 놓여진 철의 장벽을 바라보며 복받쳐 오르는 기운을 행위를 통해 마음껏 휘저으며 가물거리는 건너편의 공간과 함께 껴안고 호흡하며 살갓을 적셔야 한다.

- ◆ 작가명: **임동락 (Lim Dong-Lak)**
- ◆ 작품명: **Point-正, 反, 合 (Point-Right+ Anti+ Sum)**

◆ 국적: 한국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인간의 과학정신과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엄격한 수치논리에 의하여 제작되어진 기하학적 추상의 범주에 속한 작품으로 인류문명의 상징인 스톤헨지에서 발견 되어지는 중량감을 지니고 있다. 시간의 무한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울인 인간의 노력의 흔적으로 거석문화 유적은 태양을 숭배하던 선사시대 인간들의 주술적 사고방식에 대해 돌이켜 보도록 만들지만 이 작품은 그것을 현대적인 조형언어로 해석해 내고 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작품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 덩어리의 돌로부터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돌을 서로 결합시키고 있는 방식을 통해 건축적 구성까지 떠올리도록 만들고 있다. 구축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명쾌한 형태가 지향하는 질서와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 과격의 율동은 임동락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 작가명: 사토루 사토 (Satoru Sato)

◆ 작품명: 인간과 우주와의 평화의 장 (A place of the hope between man and the universe)

◆ 국적: 일본

◆ 작품 사진 ◆



◆ 작품 설명: 우주는 인간과 만물의 공생공유관계이다. 지구 전체가 자연환경 보호문제에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움에서 나는 이점에 각별하게 주목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뢰감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기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점은 인정하면서 서로 융화할 수 있으나 서로의 정체성은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화강석의 거친 면과 매끈한 면의 특징은 드러낼수록 좋으나, 이들을 동시에 존재케 하는 것은 웬지 부자유스러울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한국, 일본이라는 범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한국, 일본의 고유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 작품은 7개의 화강석 기둥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전부 태양을 향하여 서 있다. 이들은 ‘빛’을 향하여 각기 엄숙하게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빛을 교신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마치 인공위성이 지구에 우주파를 발신하는 작용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구형태는 서로가 밀고 당기는 인력관계를 드러내는데 이는 마치 동양철학의 사상인 음·양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돌이 존재하는 공간은 살아야만 미래 세계로 전달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기초하여 나는 우리 아시아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황금비례로서의  $\sqrt{2}$ (제공근 원리)를 적용하여 7개의 부분이 결국 하나의 중심기둥으로 통합되는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 6·25참전기념비



관리번호	40-2-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UN조각공원 내 잔디광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독립운동 관련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수호 관련시설
시설종류	비석
관리자	부산광역시 남구청(주민지원과)
건립일자	2005. 9. 13.
건립비용	50,000천원
시설규모	가로 3.5m X 세로 5.5m X 높이 3.2m (기념비 바닥: 가로 5m X 세로 7m X 높이 0.5m)
건립 취지 및 기념비내용	<p>○ 건립취지</p> <p>- 6.25전쟁에 참전하여 산화한 UN군의 명령이 안치된 세계에서 하나뿐인 UN기념공원과 평화공원이 연결되어 있는 이곳에 6.25참전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평화와 자유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관광명소로 가꾸고 6.25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의 정신함양을 위해 건립</p> <p>○ 기념비 내용</p> <p>- 작품명 : 환생의 문(정진운)</p> <p>- 작품설명: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에 바쳐진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겨 보며,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비극적 현실을 검은색 돌과 흰색 돌로 대비하여 표현</p> <p>- 전쟁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철모와 포탄을 배치하여 6.25전쟁을 표현하였고 대비되는 두 개의반원을 하나의 원형으로 결합시켜 앞으로 분단을 넘어 통일에 이르는 염원을 형상화 함</p>
현충시설지정일	2016. 11. 23.